

中 공급과잉에 정부 지원정책 축소… 태양광 산업 ‘비상’

주요 제품값 하락에 수익성 악화
중국산 가성비 측면 경쟁력 부족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 폐지 등
정부지원도 줄어 업계 생산 감축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전면중단



한화큐셀 진천공장 전경

/한화큐셀

태양광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말미암은 판가 하락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4일 한국수출입은행의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5GW(기가와트)를 정점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2.5~3.0GW 내에서 수요가 정체될 전망이다.

이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한화큐셀의 국내 모듈 생산 능력은 6.2GW에서 2.7GW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하는 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산업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진두지휘해 왔던 부문이라 경영능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에스에너지, 에스디엔, 신성이엔지, 한솔테크닉스 등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데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폐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없앤 데 이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RPS) 비율도 낮췄다.

아울러 태양광 주요 제품가격 하락하며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10mm 단결정 태양전지 가격은 W(와트)당 0.09달러, 210m

m 단결정 모듈 가격은 W당 0.18달러로 전년 고점대비 각각 45%, 33.3% 하락했다.

반면 중국 태양광 수요는 급증했다. 제품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 2022년 대비 설치비가 대폭 줄어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월까지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0% 증가한 48GW를 기록했다. 중국산 제품을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태양광 제품들의 경쟁력은 중국산 대비 열세에 놓여 있다. 중국산 대비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모듈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태양광 산업이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실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찾아가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제주항공, 두번째 화물 전용기 도입… 사업 다각화 박차

업계 최초 도입 이어 1년6개월 만
일본·베트남 지역 신규진입 검토

제주항공이 두 번째 화물 전용기를 도입하며 안정적인 화물운송 사업 기반 구축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한다.

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초로 화물전용기를 도입한 데 이어 1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화물전용기를 도입했다. 1, 2호기는 모두 B737-800BCF(Boeing Converted Freighter)로 제주항공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

와 같은 기종이다. 보유 중인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화물 전용기 운용을 통해 화물기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단 운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6월 첫 번째 화물 전용기 도입 이후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에 주 3회, 인천-엔타이 노선에 주 6회, 인천-하노이 노선에 주 6회 각각 운영해 왔다. 더불어 지난 9월까지 전자상거래 물품, 의류와 기계부품 등 약 2만t을 수송했다.

이번에 도입한 2호기는 기존 운용 중인 노선 증편과 함께 인천-오사카, 호찌민 등 일본, 베트남 지역 신규 진입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은 화물기 도입 이후 화물 전용기를 통한 화물 수송량을 지속 늘려 오고 있다. 화물 전용기 도입을 시작한 지난해 3분기에는 2925t을 수송하는데 그쳤으나 올해 3분기에는 4690t을 수송해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6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해 온 B737-800NG 기종의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 신규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전자 상거래 수요를 선점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인 리튬이온배터리, 의약품 등과 반도체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목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화물 2호기 도입을 통해 노선 확장은 물론 비정상 상황에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통해 동북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물 운송사업자로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아이오닉6,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싹쓸이

현대차그룹, 유럽서 수상 질주
18개 부문 중 5개 부문 상 차지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에서 계속되는 수상으로 낭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스코틀랜드 자동차기자협회(이하 ASMW)가 주관하는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이하 SCOTY)’에서 아이오닉6가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총 18개 수상 부문 가운데 5개 부문의 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5개의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또 수상한 5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수상해 전통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 아이오닉6는 스코틀랜드 최고의 차에 시상하는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스코틀랜드 최고의 자동차 기자

단 및 평가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올해의 차’ 선정에서 아이오닉6는 “단 하나의 눈에 띄는 차”라는 극찬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아이오닉6는 매끈한 외관에서부터 스타일리시한 실내 등 뛰어난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외에 동급 최고의 성능, 실용성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차”라고 평가했다.

아이오닉6는 ‘올해의 차’ 외에도 ‘대형 EV(Large EV)’ 부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아이오닉6는 ‘운전자 친화적인 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치열한 대형 EV 부문에서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최고의 대형 EV’로 뽑힌 아이오닉6에 대해 운전자 친화적인 기술과 낮은 유지비용을 높게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에어로, 폴란드에 K9 등 추가 수출

3.4조 규모 ‘2차 실행계약’ 체결
종합군수지원 패키지 공급 등 협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K9 자주포 추가 수출에 성공하면서 연말 수주 짝꿍을 터트렸다. 이번 추가 수출 물량은 총 152문으로, 26억달러(약 3조 4474억원) 규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달러 규모의 ‘2차 실행계약(Executive Contract)’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련장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K9 212대, 11월에는 천무 218대를 1차로 계약했다. 이번 계약은 K9의 남은 계약 물량(460대) 중 일부인 152문을 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A1 자주포.

용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자주포 및 자주포용 155mm 탄약과 K9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군수지원패키지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의 남은 계약 물량을 모두 마무리해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세계 최고속도 5G급 PoE 케이블 출시

LS전선이 고가 광케이블을 대체할 제품을 새로 내놓으며 시장을 흔든다.

LS전선은 4일 5G급 PoE 케이블 ‘심플와이드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최장 180m 거리에 5Gbps 속도 통신과 100W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종전보다 각각 5배, 3배 이상 개선했다.

이같은 통신 속도는 IP카메라와 CCTV, 사물인터넷(IoT) 등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과 데이터 백업도 가능한 수준이다. 전력량도 고성능 CCTV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다채널 카메라와 고화질 CCTV에서 주로 사용하던 광케이블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케이블보다 가격이 절반 가까이 저렴하며, 전원도 함께 공급할 수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광케이블 대비 설치 비용을 40~50% 절감할 수 있으며, 전원 케이블과 콘센트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지하철, 공원, 학교, 운동경기장, 스마트빌딩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볼보 EX30

볼보차 ‘EX30’

美과폴러 사이언스 ‘최고 혁신 50’ 선정

볼보 EX30이 전기차 보급을 이끌 최고 혁신으로 선정됐다.

볼보자동차는 미국과폴러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왓츠 뉴 어워드’에서 2023년 최고의 혁신 50가지에 EX30도 이름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베스트 오브 왓츠 뉴 어워드는 전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EX30은 수천개 제품과 기술과 경쟁해 자동차 부문에서 상위 50개에 올랐다. 안전을 중시하는 볼보 명성에 재생 가능한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기차 확대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EX30은 볼보의 컴팩트 순수 전기 SUV로, 국내 기준 5000만원 안팎의 가격에도 WLTP 기준 최대 475km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등 성능과 프리미엄 디자인도 갖췄다.

한편 EX30은 2024 유럽 올해의 차와 2024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2024 월드 카어워드 ‘세계 올해의 차’ 등에 최종 후보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김재용 기자